

#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3년 7월 취업자 수가 2013년 들어 가장 큰 폭인 36만 7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
  - 이는 2012년 7월의 고용성과(47만 명 증가)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나,
  - 2013년 상반기 실적(29만 1천 명)이나 2011년 7월의 실적(33만 5천 명 증가)을 능가하는 성과
- ◎ 7월의 취업자 증가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며, 청년층이 이러한 고용성과를 훼손하는 가운데 여성이 상당한 기여
  -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이 48만 6천 명 증가하여 2012년 7월의 성과(52만 6천 명 증가)에 비견될 정도로 우수하나, 청년층 고용이 10만 2천 명 감소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성과를 상쇄
  - 청년층(15~29세)의 고용감소는 청년층의 인구증가(5만 7천 명)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며,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던 2012년 7월이나 2011년 7월의 고용감소(각각 3만 명 감소 및 4.3만 명 감소)보다 더 큰 폭
  - 특히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에 해당하는 25~29세의 경우, 인구감소(7.5만 명 감소)보다 취업자 감소폭(9만 명 감소)이 더 큰 상황
  - 반면,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20만 1천 명 증가하여 2012년 4월 이후 가장 우수

- ◎ 7월의 고용률(15세 이상)은 60.4%로서 전년동월에 비해 0.1%p 상승하였으며, 성별과 연령층 등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양
  - 먼저 성별로 보면, 남성의 고용률(71.5%)은 오히려 0.1%p 감소한 반면, 여성의 고용률(49.9%)은 0.4%p나 상승
  - 연령별로 보면,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
  -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남성의 경우와 달리, 50세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에서도 나타나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 증가 (다만 5세 연령집단 가운데 35~39세 연령층 여성 고용률은 감소)
    - ※ 남성 고용률은 30대와 40대에서도 감소
  - 2013년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용률이 0.1%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둔화 추세와 상이한 모습
  
- ◎ 상용직 고용증가 및 상용직 이외의 다른 모든 종사상 지위별 고용감소
  - 상용직 고용증가(66만 1천 명 증가)가 지속적으로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, 상용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는 감소
  - 상용직의 대폭적인 증가는 매우 오래된 추세이나 최근의 성과는 저성장하에서 이례적인 증가
  - 여전히 25~29세 연령층에서만 상용직이 감소(4천 명 감소)하고 있으며, 3개월 미만 근속 상용직도 또한 감소하고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부진을 시사
  - 상용직 증가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도
  
- ◎ 7월 비임금근로자 감소(13만 6천 명 감소)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(7.2만 명 감소)에 주로 기인
  - 2013년 상반기에 자영업자 감소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, 7월에는 이와 다른 양상

- ◎ 노동시장 유량(flow) 감소세가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6월 들어 입직과 이직 모두 감소폭 증가

###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3년 5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높으나, 1~5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며, 7월 협약임금 인상률도 전년동기 실적에 미치지 못함
  - 2013년 5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각각 5.6%와 4.6%로서 2012년 5월의 4.7%와 2.2%에 비해 높으나,
  - 2013년 1~5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각각 4.4%와 3.1%로서 전년동기의 6.5%와 3.6%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
  - 다만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상승률은 5월 실적으로도 4.6%에 불과하여 전년동월의 5.8%에 미치지 못하며, 1~5월 평균으로 보더라도 4.7%로서 전년동기의 5.8%에 이르지 못함
  - 2013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4.0%로서 역시 전년동월의 인상률인 5.1%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- ◎ 2013년 5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다소 높으나, 1~5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
  - 2013년 5월 근로시간(전체 근로시간)은 177.6시간으로 전년동월의 177.3시간에 비해 0.2% 상승하였으나,
  - 1~5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.3시간으로 전년동기의 174.7시간에 비해 0.2% 감소하였으며,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기인 2009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

### 최근 해외 고용동향

- ◎ 전반적으로 보아 한·미·일의 고용상황은 우수한 편이나, 유로존의 경우는 열악
  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미국 실업률은 하락하는 추세
  - 반면,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
  - 고용률에서도 한·미·일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반면, 유로존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
  - 다만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인 39.1%나 유로존의 31.6%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23.8%에 불과
  
- ◎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는 매우 우수한 반면, 특히 PIGS의 경우는 매우 심각
  - 독일의 고용률은 73.1%(2013년 1/4분기, 계절조정, OECD)로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고 청년 실업률도 7.6%(2013년 1/4분기, 계절조정, OECD)로서 한국(9.2%)보다 더 낮은 수준
  - 반면,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6% 수준으로 매우 높고, 청년 실업률은 60%에 육박할 정도이며, 고용률은 50% 주위에 머무르는 상황
  - ※ 그리스의 청년 고용률은 11.6%(2013년 1/4분기, 계절조정, OECD)에 불과